

<서평>

## 한 경제학자가 쓴 아세안 연대기

박번순, 『아세안의 시간: 동남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지식의날개, 2019.

이 총 원\*

### I. 아세안과 함께한 시간

2019년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여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배우자 및 고위 인사, 재계 인사 등이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대중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이자 투자대상이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대(對) 아세안 수출과 무역수지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2000년 이후 상호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한 해 기준 약 8백만 명의 한국인이 동남아시아를 방문했고, 약 250만 명의 동남아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하지만 아세안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세안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한국과 차이가 큰

---

\*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과 박사과정수료. cnddnjs0393@korea.ac.kr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아세안은 지정학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의 대륙 지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적도 주변의 도서 지역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인종, 언어 및 종교 다양성을 보인다. 또한, 역사적으로 인도, 중국과 서방세계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이며, 유럽 국가에 의한 식민지 경험 등으로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 책의 제목인 『아세안의 시간』은 단지 두 단어임에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아세안의 시간은 저자가 학자로 아세안을 연구하면서 지내온 시간이면서 동시에 아세안 경제가 저자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온 시간을 의미한다. 저자는 산업연구원에 재직 중이던 1989년 태국의 수도 방콕에 머물면서 동남아시아의 빛과 그늘을 처음 접하였다. 이후 1991년부터 20년 이상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연구했으며, 태국 탐마삿 대학과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원(ISEAS)에 머물면서 현지에서 동남아 경제를 연구하였다. 저자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세안 연구를 지속하는 중에 집필한 『아세안의 시간』은 30년 아세안 연구의 정수를 담아낸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의 해박한 경제학적 지식과 아세안 연구 경험을 토대로 집대성한 아세안 경제 서적으로서 아세안 경제를 중심으로 역사, 정치, 사회 등에 대한 이해를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의 흐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현재까지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아세안 각 국가의 해방, 독립과정부터 성장, 공동체 형성, 위기, 정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아세안 경제, 구조와 특성, 산업, 기업, 화교 자본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인 해석부터 심층적인 분석 결과까지를 총망라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관점에서 일본, 한국,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경제 현상

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독자로 하여금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개별국가에 대한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분석은 경제학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저자의 경제학자로서의 학문적 여정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여 독자가 아세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적이라 할 수 있다.

## II. 아세안의 어제와 오늘

책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목은 ‘아세안의 시간’이지만, 부제는 ‘동남아시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서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저자는 동남아시아 개별국가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아세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연대적 순서에 따라 역사적 사실과 사건, 배경과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아세안의 과거 상황부터 국가별로 면밀하게 진단하고 있다. 각 국가의 경제가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경제 정책, 세계 시장의 상황, 보유 자원, 성장 경로 등을 통해 시간에 따라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더불어 거시경제 지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본 장은 아세안은 과거 어떤 곳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다면적인 해설로 구성되어있다. 시간에 따라 현재까지 도달하면 다시 인구, 산업, 무역, 기업구조 등 세부주제별로 아세안을 해석하고 있다.

과거의 아세안은 전후 혼란을 극복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찾아가

는 성장기의 모습을 보였다. 아세안은 내·외부적인 갈등의 씨앗을 품고 해방·독립하였으며, 1980년대 세계 경제 격변기의 흐름을 타고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현재 아세안은 2018년 기준 인구가 6.5억 명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은 세계 3위 규모이며, GDP는 2조 9,863억 불, 총교역량은 2조 8,596억 불(수출: 1조 4,281억 불, 수입: 1조 4,314억 불)로 세계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불안정한 신생 독립국으로서 세계무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중립을 유지했던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은 종전과 함께 긴 시간 동안 현지인의 삶을 규정했던 서구 열강의 식민통치에서 독립했다(34쪽). 정치적 불안기에 이념경쟁이 싹트기도 하였으나, 경제성장으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면서 이념은 힘을 잃어갔다. 한편, 현지 토착 민족, 화교, 식민지 시기 이주민의 민족 간 갈등이 지역 내에 잠재되어 있었으며, 종교적인 다양성도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필리핀은 가톨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이슬람,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불교로 종교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역에 따라 인종과 종교가 달랐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는 종전 직후 경제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가 간 차이는 있었지만 쌀, 고무, 주석 등 1차 상품 의존도가 높았다(43쪽). 한편, 낮은 농업 생산성은 지역 내 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했다. 또한, 1차 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1차 상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업화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다. 1960년대는 종전 이후 경제재건 흐름에 따라 황금기를 맞이하였고, 미국은 냉전체제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동아시아 원조를 함과 동시에 수출 시장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 미국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로 일본에 일방향적 무역흑자 감축을 요구했으며, 1985년 9월 22일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하고 일본 수출 기업의 경쟁력은 낮아졌다. 1980년대 후반 엔고와 함께 나타난 일본의 대 아세안 투자는 새로운 파도였다(60쪽). 일본 기업은 기존의 생산시설을 확충했고, 기존 내수 지향 생산에 더해 제3국 수출을 위한 우회생산도 늘려갔다. 일본 기업에 이어 한국, 대만 기업도 아세안에 진출했다. 아세안의 의류, 신발 기타 봉제품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은 한국, 대만, 일본의 투자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 시기 아세안 선발 국가의 경제발전 특징은 공산품 수출이 견인한 제조업의 발전이었다(64쪽). 세계은행은 1993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8개국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성장의 기적은 고도성장 이후 경제 내부의 거품 형성, 국제 경쟁력 저하, 외환·금융시장에서의 관리 감독 부실에 기인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인도네시아는 노쇠한 수하르토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나, 같은 해 5월 반정부 시위로 퇴진하였다. 태국에서는 민주당의 추안 리크파이 정권으로 전환되었다. 외환위기가 남긴 상처는 경제적 역동성의 급격한 저하였다.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신규투자도 감소했고, 투자자금의 조달도 쉽지 않았다. 또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아세안의 투자 매력은 더욱 감소하였다. 한 편, 역설적으로 아세안 후발 4국(CLMV)은 금융시장을 거의 개방하지 않았던 결과, 외환위기의 영향이 적었다. 이들 국가는 통화의 태환성이 없었고, 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적 자본의 공격이 불가능했다.

아세안 경제의 오늘은 현재 역동하는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며, 대표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를 의

미하는 부양비율이 감소하는 40년 정도의 기간은 경제 고도성장의 일반적인 시기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라고 한다(102쪽).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은 부양비율 상승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외의 국가는 2025년까지 부양비율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격차만큼 산업구조 역시 차이를 보인다. 제조업 비중이 20% 이상인 국가는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이며, 그 외의 국가는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인다. 아세안 일부 지역에서 농업은 빈곤의 중요한 원인이면서 경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다. 동남아 농업은 생산성이 낮고, 농업 종사자는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또한, 농업 부분의 비중이 크고 인구가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나라일수록 농촌에 많은 인구가 분포한다. 도시화는 도시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창출되어 인구 이주가 가능할 때 가능하다. 특정 도시의 과밀화도 아세안의 문제이다. 방콕은 인구가 600만을 넘어서지만 2위 도시인 치앙마이의 인구는 30만도 되지 않는다.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는 서울과 비슷한 면적에 1,300만이 몰려서 살고 있다. 일극 중심의 도시화는 주택, 교통, 환경 등 집적의 비경제를 만들어 내면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125쪽).

아세안 대표 기업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베트남의 보편적인 기업형태는 국영기업으로 나타난다. 또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흔한 기업형태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극단적으로 정부 부처처럼 운영될 수도 있는 정부연계기업(GLC, Government-Linked Company)의 형태도 있다.

아세안 경제에 밝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국적 기업 유치와 이들의 수출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다. 교역 대상국을 보면 역내 교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과 일본도 아

세안의 주요 교역 파트너였다. 2000년 이후 새로운 시장이자 수입 조달처로서 중국의 역할이 커졌고, 한국에서의 수입도 대폭 증가하여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조달을 대체하였다. 아세안은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해외투자보다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더 많다. 아세안이 세계적 수출 기지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조업을 주도하는 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 등은 다국적 기업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아세안이 할 수 있는 정책은 선진국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은 다국적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현지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아세안에서 기업의 R&D 활동은 극히 미약하며, 현지기업들은 R&D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내수시장에서 사업하는 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 Ⅲ. 세계 속의 아세안 산업과 기업, 자본

앞 장에서 저자가 아세안에 대한 거시경제적 큰 그림을 그렸다면, 본 장에서는 아세안의 주요 산업별 발전과 발전 도상에서 주요 역할을 한 기업의 명과 암을 다루고 있다. 아세안은 낮은 생산성의 농업에서 시작하여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한편,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구조를 변화하였다. 또한, 각 국가에서는 경제적 상황과 정책, 자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출현하였다. 이들 기업은 산업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위기를 겪고 사라지기도 하였으나, 새로운 국제 환경에 맞춰 변화하고 성장해가고 있다. 또한, 자생적인 기업, 한국의 기업, 화교 자본 등 다양한 주제에 따라 기업을 구분하고 동남아시아 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분업 구조 속에서 아세안의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아세안은 다양한 열대작물이 생산되는 기후

이며, 팜유나 천연고무 생산의 중심지이다. 커피도 주요 작물로 취급되며, 쌀도 주요 작물이지만 역내 소비가 많아 교역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의류산업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팜유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생산과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때, 가격이 하락했던 팜유는 2011년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사임다비, IOI그룹, 인도네시아의 월마 인터내셔널, 시나르마스 그룹 등이 팜유 대표 기업이다. 팜유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농촌소득 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바이오디젤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장려하여 지속가능성 제고 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에서 자동차산업은 태국이 선도하고 인도네시아가 뒤따르며 경쟁하는 구도를 보인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주로 부품을 수입하고,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완성차를 수입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소득증가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심도 높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기술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세계 시장구조가 이미 과점화되어 개도국이 선블리 진출하기 어려운 산업이기도 하다. 자동차산업을 다국적 기업에 맡겨둔다는 것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이 자동차 산업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인도네시아가 막강한 내수 잠재력을 가지고 경쟁을 허용하면서 산업을 육성하는지 지켜보는 일은 흥미로운 것이다(187쪽).

전자산업은 완제품을 기준으로 가정용 전자, 정보기기, 통신기기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 조립 혹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업으로 크게 반도체와 일반 전자부품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산업은 단일 산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고 기술 수준도 다양하며,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품목이나 분야가 등장하면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반도체 웨이퍼 파운드리 세계적 공급지이며,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어셈블리 및 테스트 부문, 태국은 하드디스크 생산부문, 필리핀은 기타 전기기기 부문, 베트남은 후발 주자로 삼성 전자의 투자로 스마트폰의 세계적인 공급기지이다. 하지만 아세안이 다국적 기업의 생산체제에서 어느 정도 독자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벨류체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아세안 주요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연계기업은 싱가포르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지주가 되었다. 재무부의 투자 지주회사인 테마섹 홀딩스가 싱가포르항공, 싱가포르 텔레폰, 싱가포르 개발은행, 싱가포르 항만공사 등 독과점적 지위로 운영하고 있다. 테마섹은 또한 국제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 중심의 지역화 정책을 택했다. 테마섹은 단순히 기업을 운영하기보다는 때로 단기 투자자처럼 활동하기도 하며 성장 산업에 벤처캐피탈 형태의 투자도 한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월마 인터내셔널은 1991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매출, 순이익, 시가 총액에서 아세안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월마의 사업영역은 팜유의 원료가 되는 기름야자 재배에서 기름야자 씨앗 파쇄, 식용유 정유, 설탕 정제, 소비재 제조, 지방산, 올레오케미칼, 바이오 디젤 등 팜유와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농가공 산업을 포함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비료, 제분 및 도정 등에도 진출했다. 월마인터내셔널의 강점은 열대유, 오일 종자 및 곡물, 그리고 제당, 기타 등 다각화된 사업구조에 있다. 월마의 중국 사업은 중국 내 자회사인 이하이케리가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전자산업, 스마트폰의 세계적 공급지로 전환시키면서 베트남 경제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8년

중국의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 임금 등 생산비 상승 등의 이유로 중국에 진출해 있던 생산 네트워크를 아세안으로 확장하면서 베트남은 농수산물과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첨단 제품의 수출국으로 변모하였다.

화교(Overseas Chinese)는 해외에 이주해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그 후손을 말한다. 화교 대신 화인(Ethnic Chinese)이라는 말도 널리 사용된다. 중국 당국은 화교를 선호하지만, 화교가 많이 거주하는 아세안 국가에서는 화인이라는 말을 선호한다. 이들이 아세안에 언제부터 거주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252쪽). 화교는 아세안에서 가장 많은 부를 지배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세계은행에서 아시아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화교의 성공 배경에는 판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화교 이민은 동남아에서 같은 성씨, 고향, 업종이라는 세 가지 인연을 중히 여기고 상호부조를 했다. 네트워크를 통한 화교의 사업은 일찍부터 화교 기업이 세계화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다.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업할 때 금융 네트워크는 특히 중요했다. 중국의 기반이 약할수록 더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화교 사업가들은 화교끼리의 네트워크만 중시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치권력과도 손을 잡았다. 정경유착의 정도는 국가마다 달랐다. 싱가포르를 투명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정경유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으나, 말레이시아는 정경유착이 심했지만, 화교보다는 정부와 부미푸트라와의 관계가 더 도드라졌다.

아세안의 화교 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가장 먼저 기존의 경영 관행의 유지가 불가능한 시기가 도래했다. 가족 경영, 비투명성, 네트워크, 연고주의를 통한 독과점 보호, 비제조업의 두각 등은 21세기 디지털 경제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화교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관

계 역전이다. 과거 중국의 발전에 기여했던 아세안 화교 기업은 이제 중국의 빠른 성장과 중국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로 경쟁우위를 잃었다.

#### IV. 아세안, 새로운 미래로 도약

저자는 아세안의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아세안 경제의 활화산인 베트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전후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갈 때, 베트남은 호찌민의 주도로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공산 세계의 확장을 우려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을 가로막았다. 베트남은 1986년 12월 6차 당대회에서 도이머이(Doi Moi) 정책을 채택했다. 도이머이의 핵심은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대외에 개방하는 것이었다. 특히 3가지 측면이 강조되었다. 첫째, 과거 사회주의 방식인 중공업의 건설보다는 기본적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식량생산 증대, 소비재 생산 증시, 수출 장려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둘째, 재정적자 통화팽창, 고물가, 생활난 등 4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셋째는 대외개방정책의 강조였다(299쪽).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국영, 민영, 외국인 기업이 공존하는 다부문 경제로 전환되었다.

개방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베트남으로 유입되었으며, 미국과 베트남은 대화를 시작하여 1989년에는 미군실종자 수색협력이 시작되었다. 1991년 부시 정부가 양국의 국교정상화 일정을 발표했고, 클린턴 정부는 1994년 2월 엠바고를 해제함으로써 양국은 마침내 베트남 전쟁이 끝난지 20년이 지난 1995년에야 국교를 정상화하고 외교관

을 파견하였다.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베트남은 1995년 1월 WTO 가입을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아세안에 가입했다. 2007년 1월 11일 베트남은 150번째 WTO 회원국이 되어, 세계 경제에 다시 편입하였다.

베트남이 문호를 개방하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기업이 베트남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베트남에 들어간 기업들은 비록 사회간접자본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는 부족했지만, 적어도 베트남 정부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고, 베트남 노동 인력이 훨씬 더 학습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309쪽). 외국인 투자의 증가, 특히 제조업 부문 투자로 베트남 수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수출은 1990년 25억 달러에서 2005년 324억 달러, 2018년 2,435억 달러에 달했다. 물론 소재와 중간재의 수입도 증가하여 수입은 2005년 368억 달러, 2018년에는 2,367억 달러로 증가했다(313쪽). 외국인 직접투자는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베트남 경제를 이끌어가는 3대 주체 중 하나이다.

2000년대 들어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 국가와 비교해 고도성장을 거듭했다. 2011~17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6.1%였으며, 1인당 소득도 빠르게 증가했다. 베트남이 보여준 경제성장의 기적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분야는 충실한 공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수출이다. 베트남은 같은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밟아 나간 공업화를 추진하되 경쟁력은 더 높은 상태로 만들었다. 전기·전자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했으며, 인텔의 투자 이후 산업의 일대 변화를 경험했다. 인텔은 2007년 3월부터 10억 달러를 투입해 호찌민에 반도체 어셈블리와 테스트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박닌성에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9년 휴대전화 공장을 가동했다. 삼성전자의 투자로 개발된 베트남의 통신기기 산업은 베트남을 중요한 전자

산업 생산기지로 변모시켰다(322쪽).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는 고도성장과 위기를 겪으면서 단순한 지역적 구분에서 더 나아가 아세안이라는 공동체로 변화해 갔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아세안은 경쟁하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간자적 우위를 누리며 성장했으나, 현재의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고, 과거 50년 동안 아세안이 점진적이지만 훌륭한 성과를 냈듯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 속에서 동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을 저자는 기대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방세계는 중국을 다시 찾았고, 구소련 붕괴와 동유럽 국가의 체제 전환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경쟁이 가열되었다. 아세안은 외환위기와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경험하면서, 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에 경제통합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세안비전2020’을 채택했다. 또한,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협력선언II’를 발표했다. 이 선언은 ‘아세안비전2020’을 구체화하여 2020년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아세안 공동체를 창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더 앞당겨 2015년에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아세안은 인구, 면적, 경제발전단계, 정치체제, 사회문화구조 등 상당히 이질적인 국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즉, 아세안경제공동체는 회원국의 경제적 주권을 축소하거나 양도하는 관세동맹이나, 통화통합, 재정통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EU의 통합모델보다는 NAFTA 모델에 더 가깝다. 단일 시장으로 AEC의 인구는 2017년 6억 5천만 명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은 세계 3위이며, 인도네시아만의 인구도 2억 6천만 명으로 개별 국가 기준으로도 미국에 이은 세계 4위다.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를 출범했으나, 역내 개발격차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세계화, 기술진보가 급속히 진행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차이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V. 아세안 경제 이해의 새로운 지평

서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단장은 ‘아세안의 시간은 아세안 경제를 통시적이고 종합적 시각으로 풀어낸 역작이다’, ‘한국의 상생번영 파트너인 ASEAN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책으로 큰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성공과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세안 경제의 모든 것이 이 책에 정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의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으나, 영국의 경제학자인 A. Marshall(1842~1924)은 *Principles of Economics*(1890)에서 경제학을 “일상생활을 하는 인간의 행동에 관한 연구”<sup>1)</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학자로서 일상생활과 경제이론의 경계에서 아세안 경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전문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필요한 배경지식은 간결하게 제시하여 글에 몰입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또한, 수식과 그래프보다는 직관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서 50년의 아세안 연대기를 완성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04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10년 아세안 이 대화상대국과 설정한 최고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

---

1) Economics is a study of men as they live and move and think in the ordinary business of life.

상됐다. 아세안은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 하면서 세계 6위의 경제공동체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80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아세안에 진출해 있고 30만 명 이상의 한국 교민이 현지 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일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류 전파로 아세안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책은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관계가 상술한 바와 같이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보완된다면 그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아세안의 정부 측면의 개발계획과 경제 정책, 그리고 민간의 특성 등의 서술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세안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기 위해 정치적인 변화와 경제의 방향을 다루고 있으나, 정부 정책 부분 정리에 있어서 다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세안에서 생산 및 소비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밀레니얼 세대<sup>2)</sup> 등 민간부문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저자의 집필 의도가 아세안에 대한 정보만을 담아내는 것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의 대(對) 아세안 정책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진출 현황, 일본·중국의 아세안 투자 및 정책 방향 등을 다소 보완하는 것은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심화하는 한·아세안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서, 향후 아세안 이해의 지침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아세안 형성의 근현대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설명하는 백서라 생각된다. 또한, 아세안의 명과 암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향후 아세안의 발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발간된 이 책은 아세안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이에게 추천할 만한 잘 쓰인 책이라 평할 수 있겠다.

2) 아세안에서 1980~2000년에 태어난 젊은 세대

